

ARCHITECTURE TRAVEL



정병협 나은 건축사사무소
by Chung, Byung-hyup, KIRA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지면찬/F 위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中)

Dreaming that my life is free

2009년 1월 9일

6시에 일어나 갠지스강변을 산책하고 보트에 다시 올라 주변을 관광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장터에는 향나무의 하얀 연기 속에서 시신을 태우는 재가 올려 진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갠지스, 보이지 않은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다. 강가에는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며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팬티 차림으로 수영하듯이 목욕하는 이도 있다. 가끔은 주문을 외고 기도하면서도 사진을 찍는 나를 의식하는 눈치다. 셔터를 누르니 정지동작으로 포즈까지 취해준다. 시신을 씻은 물에서 목욕을 하고 심지어 손으로 떠서 마시기도 한다. 정말 이해 불가한 사람들의 나라, 인도다.

갠지스 강의 일출 광경을 남겨보려 했는데 자욱한 안개 속에 묻혀 버린다.

숙소로 돌아가 10시까지 잠을 청하고 10시30분 roof 레스토랑에 들러 볶음밥, 스파게티 등으로 식사를 한다. 드디어 한국서 가져온 고추장이 식탁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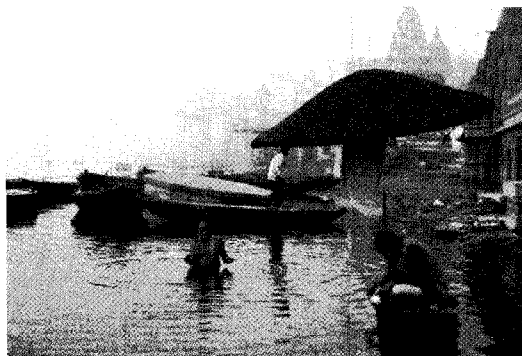
어제 찬물로 샤워해서인지 팔내미가 감기 기운으로 몸 상태가 별로다. 바라나시 역으로 가려고 큰길로 나오는데 30분 넘게 또 골목을 헤맸다.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2대의 사이클릭샤를 타기로 했는데 나는 수염이 텃수룩한 할아버지의 릭샤를 타고 집사람과 나래 뒤를 따라갔다. 집사람이 걱정되는 지 자꾸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No problem이라며 손을 흔들어준다.

바라나시 역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짐을 맡기려고 보관소를 찾아 이리저리 일층에서 이층으로 돌아다녔으나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은 어떤 젊은이가 안내해주어 구석진 곳에 있는 보관소를 찾았다. 인도인들은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아무 곳이나 손짓을 하여 헤매게 만든다. 혹시나 분실할까 해서 짐을 맡기면서 사진을 찍어둔다.

자투리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 고민하는데 나래가 힌두대학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가보자 한다. 색다른 볼거리가 있을 거 같았다. 역을 나오니 릭샤꾼들이 흥정을 하려고 몰려온다. 하나를 골라 타고 가는데 돈을 더 요구하며 중간에 내리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내려서 다른 오토릭샤를 갈아타고 힌두대학교 정문 앞에 무사히 내렸다. 제법 규모가 큰 건물들이 보인다. 교내에 걸려 있는 학교 안내판을 보니 엄청 넓다. 인도에서 5번



갠지스 강가에서 목욕하는 모습



화장터에서 의식을 올리는 모습

째로 큰 대학교라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걸어서는 못 돌아다닐 것 같아서 착하게 생긴 나이 어린 소년이 흥정을 하길래 흔쾌히 승낙을 하고 학교를 한바퀴 도는데 설명을 재미있게 한다. 복잡한 거리를 벗어나 숲속길을 산책하는 맛이 참 상쾌했다. 릭사비를 치르고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1층은 조각상과 테라코타 그리고 인도의 동전 등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엘리스 보너라는 영국 여자가 인도에 와서 살면서 그린 그림들이 전시된 갤러리였다. 입장료가 아깝지 않아 다행이다. 밖으로 나오니 넓은 잔디밭에는 몇 명의 남자 대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옆에서 여학생이 책을 읽으며 리포트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네 대학풍경과 흡사하다.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그 어린 릭사꾼이 우리를 기다린 듯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다.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인지 대부분의 인도남자들은 미백한 치아처럼 이가 유난히 하얗다. (인도 여행 내내 집사람은 왕방울만한 인도남자의 눈과 까무잡잡한 피부와 치아가 은근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릭사를 다시 타고 사원 쪽으로 간다. 벌써 저녁노을이 지려고 한다. 교내에 있는 사원인데도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다. 이 곳도 역시 입장료와 사이클릭사 주차비는 물론이고, 사원은 신발을 신으면 입장할 수 없어서 신발 맡기는 것까지도 다 유료다. 다시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연구소 인듯한 건물 안 뜰에서 공작새가 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인다.

아그라로 가는 열차를 타기위해 다시 바라나시 역으로 가는데 아까 힌두대학까지 태워다 준 그 릭사를 다시 타게 되었다. (우리는 인도에서 이런 우연의 일치를 몇 차례 겪었다)

기차 시간이 촉박하여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운다. 기차에서 먹을 오렌지와 바나나 등 과일과 식빵을 샀는데 그 때 우리는 이것이 고행의 시작이 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골라커룸으로 배낭을 찾으러 갔는데 역에 들어서면서 안내판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4863번 아그라행 열차 운행 표시가 없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라커룸에서 짐을 찾으려서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우리가 예약해 놓은 아그라행 열차 4863 운행이 취소되었다고 심드렁하게

말하는 것이다. 바라나시로 올 때 6시간의 딜레이도 놀라웠는데 출발 30분 전에 cancel 통보라니, “오마이 갓!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인도인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움직인다. 역 안에 여기저기 깔아놓은 이불들, 그것들을 덮고 누워 있는 인도인들을 보고 있으니 더 화가 치밀어 끓어오른다. 우리가 이동하는 열차여행 티켓을 모두 예약해 놓은 상태여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티켓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쓸모 없는 종이가 될 것이다. 야닌 밤중에 흥두깨라더니... 어떤 속담으로도 표현할 길 없는 놀라움을 현실로 받아드리고 극복하는 수 밖에 없었다. 나라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알아보다가 무굴 역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여기서도 바쁘게 왔다 갔다 하지만 티켓창구가 모두 닫혀있어 표를 구하기가 어렵다. 나라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더니 매표소로 들어가서 그 인도 아저씨의 도움으로 general 3장을 끊어서 왔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왔다갔다 하는 딸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가 실감난다.) 덕분에 우리는 툄들라 행 3장을 들고 플랫폼으로 이동해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과자도 먹어가며 열차를 기다린다. 날이 어두워지고 춥다. 델리역에서 본 것 같은 검은 소도 어슬렁거리고 들개같은 큰 개도 눈앞에서 오간다. 그 와중에 이 기차마저도 21시30분에서 새벽 1시 45분으로 딜레이 됐다하니 딸내미와 집사람이 너무 춥다고 한다. 다시 대학실로 왔다. 배낭을 다시 띠고, 대합실에 자기 집 안방처럼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앞 의자에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2시로 딜레이 됐다고 한 기차가 지금 막 도착했다고 해서 배낭을 급하게 찾아 메고 숨차게 뛰어 3번 플랫폼으로 갔는데 2시 툄들라 행 열차는 빨간 점만을 남기고 유유히 멀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 대합실로 다시 가 대책을 세워본다. 알아보니 잠시 후에 6번 플랫폼에서 델리 행 열차가 출발한다고 한다. 표도 안 끊고 부랴부랴 달려간다. 아무 칸이나 올라탔다. 다행히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는데 총을 든 군인같은 사람들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 배낭을 놓고 한숨 돌린다. 건너편 좌석 2층에 있던 젊은 인도청년이 우리 곁으로 내려온다. 나



바라나시 대학교에서

래 이야기를 듣고 티켓을 보여 달라하더니 여기 있으라고 한다. 2시경 열차는 드디어 무굴 역을 출발한다. 007 영화를 찍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다.

1월 10일

1층 침대칸에 짐을 부리고 새우잡을 청한다. 새벽 4시경 누군가 기척해서 일어났더니 우리자리의 임자들이다. 짐을 챙겨 출입문 쪽으로 옮겼다. 열차가 설 때마다 누런 제복의 무장한 군인들이 내려다가 다시 탄다. 죄지은 것처럼 불안하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온다. 잠이 오지 않아 No smoking이라 적힌 승강구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기도 했다.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여기서 흥정이 통하는지 반 값으로 해결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아침이다. 7시. 기차를 타기 전 샀던 오렌지와 바나나와 식빵을 꺼냈는데 식빵은 거의 대부분이 부스러져 빵가루가 되어 있다. (노점에서 파는 인도식빵은 딱딱하다.) 눈물 젖은 빵이 아닌 한숨 뿌려진 빵가루인 것이다. 빵가루와 과일로 아침을 때우고 창밖을 내다본다.

어젯밤 그 젊은이가 가르쳐 준 깡뿌르 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아그라를 제대로 찾아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열차지도를 한국에서 확대 복사해 왔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다. 역무원이 가르쳐 준 대로 10시 25분에 내려 건너편에서 툰들라 행으로 다시 갈아탔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탄 열차가 툰들라행이 아니고 텔리행이라고 한다. 툰들라 역을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 또 오마이갓. 14시에 시골역 같은 허허 벌판에 있는 Kurara역에 내려야만 하는 심정... 원숭이 구경하듯이 열차에 탄 인도인들은 우리가 가는 대로 그들의 왕방울만한 눈동자를 움직인다. 역에 있던 인도인들은 우리를 따라 움직인다. 그 무엇을 물어 볼 수도 없어 육교를 건너 역무실로 가서 물어보니 아그라 행 열차가 2시에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육교를 뛰다시피 하여 오고 있는 로컬열차에 간신히 올라탔다. 자리는 커녕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공간에서 덩치 큰 배낭까지 메고 어정쩡하게 있는 아내와 딸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는데 어떤 인도남자 한 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에게 자리양보를 하라 말한다. 아까 우리를 태워준 역무원이 사람들에게 무어라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아마도 여행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말이었던가 보다. 정거장에 열차가 잠시 머무는 동안 그는 겹겹이 내려더니 짜이를 사들고 우리에게 건넨다. 내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날 늦었다.

아그라에 도착하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친절한 인도 남자의 배려에 무사히 일정대로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행운이다. 꼬박 하루가 걸리긴 했지만 말이다. 딜레이 되어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캔슬 되어 떠나기는 더욱 어려웠던 바라나시는, 우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준 셈이다. 나래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조디부르행 기차를 취소했다. 이제 속소를 정해 깨끗

하게 씻고 저녁을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다. 인도100배 즐기기엔 나와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갔는데 핫샤워가 안 돼 타지마할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핫(hot)샤워가 되는 시설이 좋고 마음에 드는 호텔(Hotel Shella)을 찾아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 타지마할 주변의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이어서 무장경찰들이 Gate를 막고 차량통제까지 하고 있었다. 대강 짐을 풀고 한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는 Jonny's place라는 식당에서 오므라이스와 라면, 감자 고로케, 바나나 라씨 등을 먹었다. 양배추로 만든 김치와 라면의 절묘한 조화라니. 인도에서는 모든 게 용서된다. 배고픔만 해결된다면... 어둠에 묻힌 타지마할 동문쪽을 걸어서 숙소로 돌아오며 내일 만날 타지마할을 그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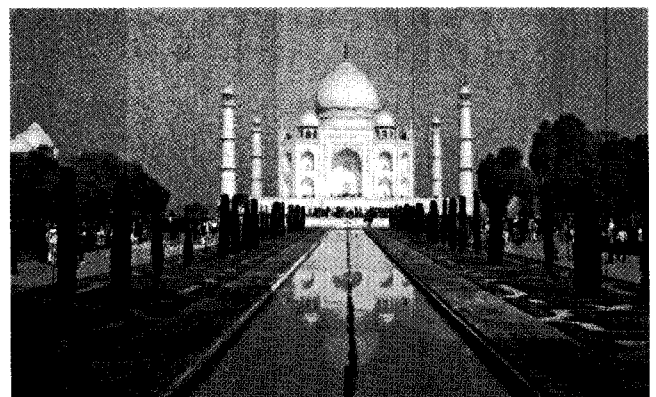
1월 11일, 아그라

7시 기상하여 roof 레스토랑에 올라가니 아침 해가 뜬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상쾌하다. 어제까지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올리니 여기가 천국이다. 옆 테이블의 한국 여자 관광객이 세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한다. 다시는 못 올 곳이라며 한마디 덧붙인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생생한 여행정보를 교환한다. 프렌치토스트, 오믈렛(버섯&토마토), 후라이&토마토, 라씨와 짜이로 아침 식사를 한다. 옆자리에서 에그&어니언 오믈렛이 맛있다 하여 우리도 더 시켜 먹었다. 타지마할을 곁에 두고 있어서 밥맛이 더욱 좋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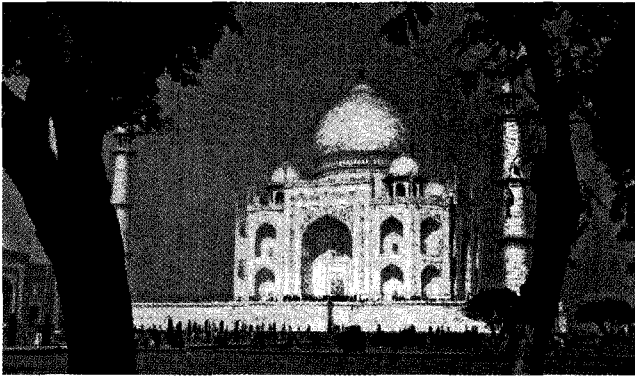
타지마할 East Gate로 이동하는 길에 인도 학생들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걸어가길래 같이 사진 찍자고 집사람이 제의하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같이 기념 촬영을 한다. 과거 인도인들은 사진을 찍는 것이 영혼을 빼앗기는 거라고 기피했다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몇 컷을 찍어도 웃으며 포즈를 취한다.

타지마할에 입장하는 길에 아그라행 열차를 놓쳐 취소했던 조드부르행 열차 대신에 버스티켓을 구입했다.

11시경 East gate로 입장하는데 입장료도 비싸지만 몸수색과 가방검사를 철저히 한다. (입장이 불가한 것들은 락커에 보관해야 한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타지마할



타지마할반영



타지마할전경

을 구경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푸르른 하늘과 흰구름도 그림처럼 떠있다. 날씨가 좋게 해준다. 아치형 입구에 들어서니 순백색의 타지마할이 파란 하늘 아래 흰 드레스를 입은 여신처럼 보인다.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입구에서부터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빈다. 사람들의 물결에 끌려 발걸음을 옮긴다. 연못에 비친 타지마할의 모습도 너무 근사하다. 시시각각으로 순백색의 타지마할의 색상이 바뀌는 것을 사진기에 담느라 정신 없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집사람과 나래가 안 보인다. 앞으로 갔을거라 여기며 타지마할을 향해 계속 걸어가니 다이애나의 의자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나래와 집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다.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나래가 점프하는 모습을 찍었다. 내 마음도 나래처럼 점프한다. 입구에서 얼마아마하게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니 덧신과 생수 1병씩을 준다. 가까이에서 타지마할을 보니 더욱 황홀하다. 걸모습에 이미 반했는데 정작 내부의 장식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외장재, 내장재가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 장식 모두가 보석까지 들어가며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 샤자한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 타지마할은 몽골제국이 멸망한 후, 몽골계의 후손이 인도에 무굴제국을 세웠는데 1630년경 “샤 자한”이라는 무굴제국 황제가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15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왕비를 추모하여 세운 묘이다. 샤 자한은 자기 부인을 너무나 사랑하여 죽어서도 불에 타지 말고 영원하라고 묘 이름도 타지마할로 붙이고, 이 건물을 지은 장인들은 다른 곳에 짓지 못하도록 황제가 장인들 손목을 잘라 버렸다고 한다. - 왕비의 묘 주위는 어두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관리인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냥 가기가 아쉬워 감쪽같이 사진 한 장을 남겼다. 밖으로 나오니 파란 하늘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친다. 나와서도 이리저리 포즈를 취해가며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남겨본다. 아내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타지마할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생각난다면서 자기가 이곳에 왔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고 말하며 아이처럼 좋아한다. 타지마할을 구경하는 오늘은 모두들 기분이 좋아 계속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머문다. 떠날 시간이 되어 남쪽 게이트로 나왔지만 마음은 타지마할에 머문

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나올 때처럼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기념품 가게들이 꽤 있었는데 지나는 길에 타지마할 열쇠고리만 샀다.

4시까지 여행사에 가야하므로 어제 저녁에 갔던 Jonny's place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4시 30분 버스티미널에 도착하여 과일, 과자 등을 사고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린다. 이곳은 터미널이라고 해봐야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태우고 가는 정도의 공간이다. 바라나시에서 아그라로 가는 열차가 취소되어 거의 하루를 길에서 소비했기 때문에 미리 예약 해 놓았던 열차는 시간이 안 맞아 취소하고 버스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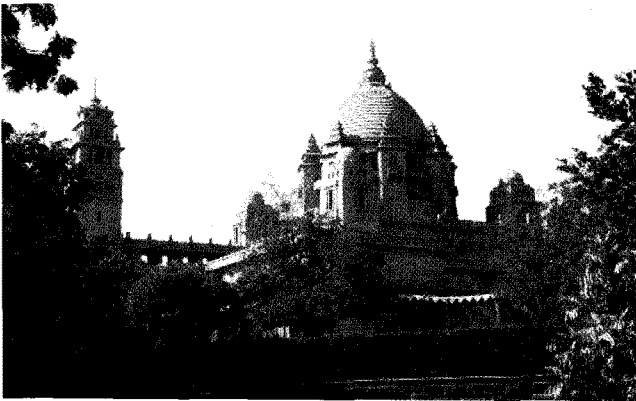
우리가 타고 갈 버스가 리무진 버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우리나라의 70년대 버스 수준이다. 카메라 덕택에 버스티켓을 끊을 때 바가지를 썼나보다. 인도사람들은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생각한다. 자리를 잡고 잠시 기다리니 17시30분 조드뿌르를 향하여 출발한다. 버스 엔진소리가 요란하다. 시동을 걸 때는 오토바이 엔진소리 같다. 이 버스에 몸을 싣고 12시간 이상을 이동을 해야 한다니 아찔하다.

2층 침대칸에 집사람과 딸내미가 타고 나는 1층 좌석에 앉았는데 1층 좌석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여 2시간 가고 쉬어 갈 때 무조건 내려 스트레칭을 하였다. 간간히 쉬는 곳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 아닌 포장마차 수준으로 화장실도 변변찮고 모든 게 불편하지만 길가에서 계란을 부쳐 넣은 토스트를 사먹고 짜이를 마시며 인도풍을 몸으로 체득하는 맛도 나름 괜찮다. 휴게소에 설 때마다 -인도인들은 남의 것을 자기것으로 생각하는 근성이 있기에 - 잃어버릴 새라 목베개를 가지고 내리는 나를 보고 아내가 피식 웃는다. 정말 절실하면 스스로 챙기게 마련인가 보다. 버스가 달리면 자동으로 유리창이 조금씩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와 춥다. 모든 것을 몸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분의 옷가지로 몸을 두르고 잠을 청하며 예정보다 2시간 늦은 7시 45분에 조드뿌르에 도착한다.

1월 12일 조드뿌르

이 곳이 종착역이 아니라서 버스 뒤 짐칸에서 배낭을 꺼내는데 배낭이 완전히 흠먼지 범벅이 되었다. 얼떨결에 짐을 내리는데 버스는 매연을 내뿜으며 급하게 출발한다. 주변에 있는 고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따뜻한 물에 기분 좋게 샤워를 한다. ROOF 식당에 올라 성곽을 보며 늦은 아침을 먹는다.

조금 쉬다가 14시 쯤 성곽 구경을 위해 숙소를 나온다. 오토릭샤를 전세 내어 편하게 이동하였다. 이것이 자유여행의 참맛이다. 제일 먼저 찾아 간 곳은 우메이드 바반 팰리스(Umaid Bhawan Palace)인데 사다르 바자르(Sadar Bazaar) 시장에 있는 시계탑을 가려다가 시간상 방향을 틀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중간에 쉬어 경치를 감상하기도 했는데, 초원은 아니지만 들



우메이드 바반 펠리스

넋에 얹은 강이 흐르고 파란 하늘에는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니고 들소들이 페지어 강가에 앉아서 쉬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기만 했다.

우메이드 바반 펠리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왕실 저택이라고 하며 각기 다른 모양의 방이 346개가 있어 더 유명하다고 한다. 지금은 왕실 가족이 쓰던 사치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유명인사가 머무르는 호텔로 개조됐다. 외관도 화려하여 눈을 떼지 못한다. 이어 높이 121미터의 메헤랑가르 성(Meherangar Fort)을 지나 자스완트 탄다(jaswant Thanda)를 먼저 구경한다. 이 기념관은 아그라의 타즈마할과 같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파란 하늘과 어울려 순백색의 건물이 유난히 더 아름다웠다.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호수는 너무 맑고 청정한 물빛이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내는 파란색의 건물이 유난히 많았는데 최상층 브라만들이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일부러 칠해 놓았다 한다. 자스완트 탄다(jaswant Thanda)를 배경으로 가족 사진도 많이 찍어둔다. 마냥 머무르고 싶지만 다시 메헤랑가르 성(Meherangar Fort)으로 이동한다.

메헤랑가르 성(Meherangar Fort)은 산 정상부에 세워졌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서 시내에서도 하나의 산봉우리처럼 한 눈에 보인다. 입구에서 암벽위에 조성된 성을 올라다보니 섬세한 조각품처럼 보인다. 파란 하늘이 성안을 둘러보는 걸음걸이를 더 가볍게 한다. 자이뿌르, 바카베르 연합군(Jaipur Bikaner Alliance)을 불리친 기념으로 세운 개선문인 자야 폴(Jaya Pole)을 지나 태양의 문이라 불리는 수라즈 폴(Suraj Pole)로 들어서면 왕궁을 개조한 박물관이 나오는데 마하라자의 대관식이 거행되었던 모띠마할(Moti Mahal)과 왕과 시녀들의 춤이었던 풀 마할(Phool Mhal)은 '진주의 궁전', '꽃의 궁전'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의 화려한 아름다움에 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내부에서 보는 바깥 풍경도 아름다웠다.

눈을 한껏 즐겁게 하고 밖으로 나오니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다. 출구 쪽에는 피리 부는 아저씨 둘이 있었는데 소박한 대학생들로 보이는 이들이 민속 음악이 나오니 갑자기 두리둥실 흥겨운 영딩이춤을 추고 있다. 인도 여성들은 꽤나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내

게는 이례적으로 보였다.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노을이 별경계 달아오르니 사진거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니 두 사람이 빨리 가자고 성화다. 카메라를 들고 서서 그 자리에서는 어떤 구성도 되질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때마침 낙타 물이꾼이 지나가고 있었다. 재빨리 뒤로 뛰어가 셔터를 눌러 보지만 마음만 급했는지 그냥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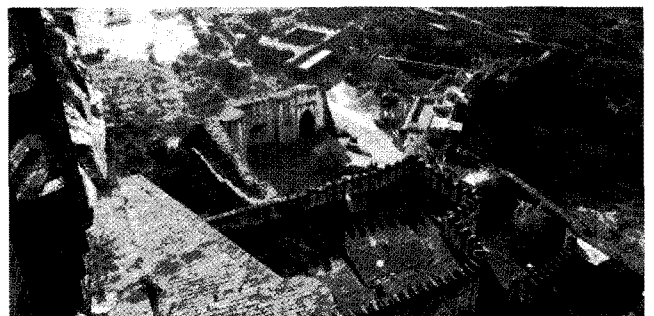
전세 낸 오토릭사꾼이 지금껏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녁은 타즈(TAJ)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하고 릭사꾼에게 지도를 보여주고 찾아간다. 타즈(TAJ)호텔 레스토랑에 도달하니 제복을 입은 사람이 문을 열어주며 아주 친절하게 안내한다. 이곳 주변은 인도의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못하게 차단하는 듯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고급 호텔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식사하는 내내 옆에 서서 말하지 않아도 소리없이 서비스를 한다. 비용은 들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본다. 분위기 있게 먹은 후 인도 민속공연도 잠시 보고, 기념사진도 찍어본다.

자이살메르로 가는 열차는 딜레이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뻐는데 기차는 10시 30분에 왔지만 출발은 11시 30분에 했다. 어디나 인도적이다. 생전 처음 하는 낙타 사파리를 기대하며 침대에 누워 잠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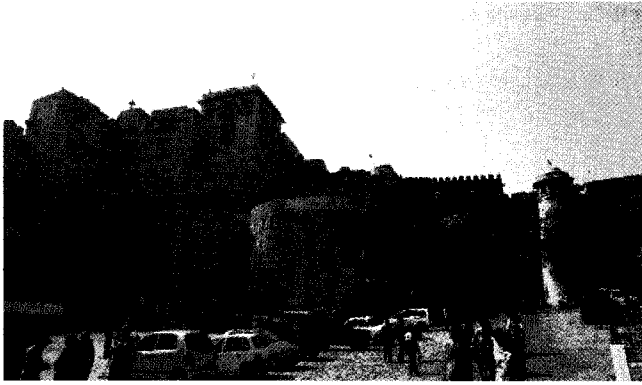
1월 13일~1월 14일, 자이살메르

새벽 5시 30분 자이살메르라고 해서 열차에서 내린다. 깜깜하고 춥다. 오토릭사를 탔다. 비좁은 릭사 안에 배낭을 싣고 세 사람이 딱딱딱 붙어 앉았는데도 차가운 기운이 옷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변화가 심하다.

6시20분 숙소인 타이타닉 호텔 앞에 다다른다. 호텔 문이 잠겨있어 한참을 두드리니 노인 한 분이 팬티바람으로 나온다. 수속을 마치고 지하실 방에 임시로 짐을 풀고 정리하고, 7시30분 Roof 식당으로 올라가니 친바람이 꽤나 매섭다. 아침노을이 별경계 주위를 물들인다. 언덕 위에는 성이 우뚝 서 있고 새떼들이 실 새 없이 날아다닌다. 까마귀 울음소리도 섞여 들린다. 뜨거운 짜이 한 잔으로 허기와 추위를 달래가며 식사를 기다린다. 인도여행 필수코스라서 이곳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많이 상대해서 한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한다. 인도라면과 김치볶음밥, 오



메헤랑가르성에서 바라 본 조드뿌르 시내 전경



자아살메르 성 전경

플랫을 시켜 유난히 착해보이는 청년에게 서빙을 받으며 먹는다. 카레 맛이 강한 인도라면은 국물을 직접 만들어 요리했다고 한다. 무척김치가 제법 먹음만 했다. 볶음밥은 양이 너무 많아 남긴다.

숙소에는 낙타 사파리를 즐기러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띈다. 처음에는 모두 홀로 왔는데 지금은 모두들 쌍쌍이 되어 다닌다. 낙타 사파리가 매우 춥다고 하여 배낭에서 옷가지들을 더 꺼내왔다. 옆에 있던 청년이 손난로 2개를 건넸다. 같은 처지에 마스한 인정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맙다. 10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11시가 돼서야 출발을 한다고 한다. 따뜻한 햇볕을 쬐며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짜이도 마시며 직원들과 사진도 찍어가며 기다린다. 같이 가기로 한 일행 중 감기 때문에 못 가는 이도 있었다. 나래도 감기가 걸려 있었지만 우리는 강행했다. 봉고차를 타고 라자스탄 사막 사파리 캠프에 11시 30분에 도착하니 우리가 타고 갈 낙타들이 무리를 이루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낙타들의 눈이 초처럼 크고 순하다. 큰 눈이 슬퍼 보이기도 한다. 얼굴에 파리 떼가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가 낙타 등에 올랐다. 낙타가 뒷발부터 일어나더니 앞발을 치켜 일어선다. 순식간에 내 몸이 공중으로 솟았다. 낙상이라도 하면 어쩌나 순간 아찔했다. 낙타의 움직임에 맞추며 몸의 균형을 잡고 카메라를 조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낙타몰이 대장인 장보고(낙네임)는 묵묵히 걸어가고 나이 어린 몰이꾼은 고삐를 잡고 걸어간다. 2시간 정도 가니 점심을 먹기 위해 낙타에서 내린다. 장보고를 비롯 다른 몰이꾼들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팬에 굽고(짜파티라 부른다), 감자를 썰어 커리를 만든다. 그동안 낙타들은 앞발이 묶인 채 그들만의 점심을 먹는다. 타잔이 나올 것 같은 숲속 풍경에다 원시적인 요리도 구 등이 이번엔 아프리카 탐험 영화를 찍는 기분이다. 처음 접하는 풍경이라 신기하기만 하다. 별 맛없는 짜파티와 커리지만 맛있게 먹는다.

휴식을 취하고 다시 사막을 향하여 14시 45분 출발한다.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졌다. 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연못이 있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주위의 염소와 소들도 물려와 같이 물을 먹는다. 다시 길을 떠나는데 넓은 벌판에서 염소가 혼자 서서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16시에 도착하여 모래바닥에 짐을 풀니 날아갈 것만 같다. 짐을 풀자마자 모래언덕으로 뛰어가 사막의 기운을 느껴 본다. 같이 온 젊은이들은 플라로이드 사진기로 우리 가족사진을 찍어주고 벌써 저만치 뛰어간다. 그들은 사막 위에 크게 L, O, V, E, 라고 쓰고 사진을 찍더니 숨바꼭질하듯 여기저기서 불쑥 나타난다. 사막을 났은 뜨거운 젊음이다. 보고 있으니 절로 흥이 난다. 나래와 집사람이 모래언덕위에 누웠다. 얼른 사진기에 담는다. 걷는 발의 감촉이 포근하고 아늑하다. 두 마리의 낙타가 마주 보고 앉아 한 포대에 담긴 먹이를 먹는 장면도 사진기에 담는다. 평화롭다. 저녁 식사는 우리가 가져온 고추장 하나로 11명이 비벼 먹었다. 저녁 먹고 노숙할 자리를 펴고 짐을 챙겨놓는다. 때마침 하늘에는 노을이 멋지게 든다. 내가 기대했던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연신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급했는지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어 많이 아쉬웠다. 8시경 어둠이 깔리자 바비큐 파티가 벌어진다. 장보고는 주위의 마른 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붙인다. 고구마, 감자, 닭을 호일에 싸서 모닥불에 던져 넣는다. 밤하늘에 은빛 찬연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맥주도 곁들인다. 오손도손 모닥불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다들 혼자 여행했다가 자아살메르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없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밤하늘은 밝아지고, 마음은 흥겹고 ... 감자와 통닭 바비큐를 이렇게 맛있게 먹기는 처음이다. 언제 왔는지 들게 한 마리가 다가온다. 약간 겁이 났지만 닭다리를 던져준다. 마른 나무를 수북이 쌓아 뒀는데 어느새 다 없어진다. 낙타몰이꾼들은 자리 가자 우리도 침낭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나래와 젊은이들은 새벽까지 놀 셈인지 마른 가지들을 다시 모아다가 수북이 쌓아 놓는다.

모래바닥에 깐 침낭 속에 누워 밤하늘을 보고 있으니 -여행을 떠나기 전 사막사파리의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래의 고등학교 사회선생님께서 사막사파리에서 별이 쏟아질 듯 많고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을 듣고 내심 많이 기대했었다- 쏟아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맑고 촉촉한 별이 아름다워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이야기 소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듯했다. 일출을 보러 일찍 일어난다. 여행을 오면 나는 이상하게 아침잠이 없어진다. 사막 위의 일출, 근사하다. 같은 자리에서 일출과 일몰을 같이 보게 되는 인도의 땅덩어리다.

1월 14일

나래가 꼴찌로 일어났다. 거의 밤을 샌 모양이다. 어제와 달리 다들 초췌한 얼굴이다. 9시에 삶은 계란과 토스트로 아침을 때우고 일찌감치 숙소로 출발한다. 가랑이가 아팠지만 다시 낙타를 탄다.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어젯밤의 들개가 계속 우리를 따

라온다. 돌아오는 길은 볼거리도 없다. 바람만 여전히 매섭게 분다. 10시 50분 캠프 입구에 도착하여 다시 차를 갈아타고 11시 50분에 숙소로 도착한다.

Roof 식당에서 라면 3개를 먹더니 나래와 짐사람은 햇빛이 따가운 옥상임에도 불구하고 소파에 누워 잔다. 많이 고단했었나 보다.



저아살메르 사막에서 기족의 포즈

나도 고단하긴 했지만 자는 시간도 아까워 카메라를 들고 저아살메르 성으로 홀로 간다. 입구가 금방 보일 것 같은데 쉽게 안 나온다. 입구에 들어가니 성안에 사람들이 기거를 하며 관광 상품도 판다. 게스트 하우스도 많이 있고 옷가게들도 많다. 연보라색 셔츠와 낙타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 샀다. 인도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마음에 든다. 기거를 하며 물건도 팔지만 문화재를 전혀 손상하지 않고 수리를 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북촌 마을 등의 문화재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면 이곳에 정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돈을 벌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어서 밖으로 나와 시내 구경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길이 비숫비슷해 보여 몇바퀴를 돌았다. 숙소에 가까이 다다르니 짐사람이 옥상에서 빨리 오라고 소리를 친다. 부지런히 옥상에 올라가니, 원래 여행 코스는 아메다바드로 해서 봄바이로 갈 예정인데 코스를 바꾸자는 것이다. 예전에 인도여행 가이드했던 청년에게 불으니 우다이푸르를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차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결정하라는 것이다. 사장이 주선하여 버스표를 구해놓았다며 30분 내에 가야 된다고 하여 우다이푸르행 버스터미널로 급하게 떠났다.

1월 15일~1월 17일, 우다이푸르

터미널에 도착해 승차권을 구매 했다. 전에 아그라에서 조드푸르로 갈 때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침대칸으로 선택하여 그 런대로 편하게 가게 되었다. 백주 한 잔씩 먹고 승차하여 우다이푸르로 향한다. 우다이푸르는 인도 서부 제일의 신희 여행지이자 호반 도시로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한 라자스탄 남부에 위치해 있다. 아름

다운 피촐라 호수Lake Pichola와 호수속 작은 섬처럼 자리잡고 있는 호반궁전 레이크펠리스의 아름다움은 많은 인도인에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이다. 1월15일 새벽 5시 우다이푸르(Udaipur)에 도착하여 숙소를 잡으러 오토릭사를 잡아타고 출발한다. 립사꾼은 출발하기 전에 흥정을 어렵게 하더니 내려서도 생트집을 잡는다. 립사꾼들과의 마찰은 마음을 불편하다. 새벽녘이라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다. 처음 가려고 했던 Dream Heaven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위의 다른 곳을 찾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처음 가려고 했던 Dream Heaven 옆 하얀 호텔(아쉽게도 호텔이름은 기억나지 않음)의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잠에서 깬 듯한 남자가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많이 비싸긴 하였는데 하얀 이불과 내부 장식이 깨끗하고 쾌적하여 마음에 쏙 들었다. 여유있게 샤워도 하고 세탁물도 맡기고 인도에 와서 처음으로 침낭을 깔지 않고 그냥 잤다. 아침을 먹고 와서 또 잤다. 잠자리가 편안하니 잠이 밀려온다. 오후 2시가 넘었다.

낙타 사파리 체험이 힘들었는지 온 몸이 쭈시고 아프다. 입술도 부풀어 오른다. 간신히 몸을 추스려 오후 3시쯤 시티펠리스로 향하며 이번엔 바가지 쓰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 길에 뭍바이 행 버스티켓을 예매한다. 시티펠리스로 가는 길은 복잡하고 점포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주변 환경이 열악해 보인다. 시티펠리스 입구에 들어서니 노인으로 보이는 궁전 관리직원이 쪼그리고 앉아 망치와 정으로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도로면을 다듬고 있었고 장총을 든 경비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시티펠리스(City Palace)는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지어진 궁전이었는데 라자스탄을 대표할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오후 5시까지 구경하고 호수로 가기 위해 워킹을 하였는데 너무 멀다. 할 수 없이 오토릭사를 타고 파테시가르(Fateh Sagar) 호수(피촐라 호수 북쪽에 있는 인공 호수)로 간다. 이곳에서 페달보트를 빌려 타고 아름다운 호수를 한 바퀴 돌려고 하였으나 너무 힘이 들어 중간에 유턴하여 시간도 못 채우고 돌아온다. 다시 립사를 타고 숙소 옆 Dream Heaven Roof 식당에서 야경을 즐겼는데 카페 분위기가 낭만적이었고, 많은 서양인들도 저녁을 하고 있었다. 오후8시쯤 숙소로 돌아와 그대로 뒹굴어 떨어졌다.

1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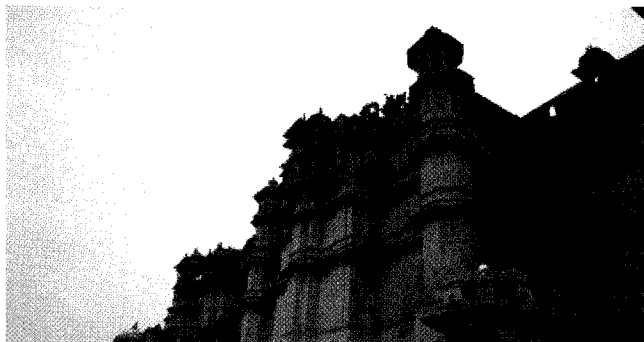
우다이푸르 체류 이틀째이다. 몸 상태가 아직까지 별로다. 8시 아침 식사 후 모망을 하니 멋있는 궁전 같은 곳이 길게 펼쳐져있어 물어보았더니 호텔이라고 한다. 딸내미한테 저기 가서 차 한 잔 할까 했더니 너무 비싸다고 한다. 무조건 10만원 정도하는 뷔페를 먹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숙소 앞 정원에서 휴식을 취한다. 다람쥐도 내 앞에서 놀다 가고 사원 뜰에는 원숭이 부부가 놀고 있다. 호수 가에는 동네 아이들이 야구 비슷한 인도의 전통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다시 객실로 돌아와 점심 때까지 잠을 잔다.

주변 골목 풍경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소품도 사며 구경하다가 오후 4시쯤 오토릭사를 전세내어 문순팰리스를 간다. 시골길 같은 포장도로를 달려간다. 매표소를 통과하고 산길을 달리니 멕시코 선인장 같은 식물도 보이고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요상한 나무들이 줄지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든다. 굵이 굵이 도는 고개를 빙글빙글 돌아 정상에 오르니 잘 관리되어 있는 정원과 궁전을 보고 또 한 번 눈을 동그랗게 뜬다. 원숭이들도 나뭇가지에 올라 모델 노릇을 한다. 사진을 찍으려다 옆에 갔다가 달려드는 바람에 혼났다. 숲속의 야생 원숭이라 거칠다. 관광객은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다이뿌르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작은 산들 사이에 호수가 떠있고 그 옆으로 하얀 집들이 촘촘히 박혀있다. 멀리 보이는 산은 우리의 지리산 능선처럼 길게 뻗어있다. 산 아래 집들은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 마치 스위스의 농가처럼 예쁘다. 타워에 오르니 아래가 더 깎아지른 듯이 보인다. 기둥에는 하트 모양의 사랑의 낙서들이 곳곳에 있다. 오후 6시경 하산하는데 하나 둘씩 도시의 불빛이 켜진다. 아름다운 일몰과 야경을 동시에 감상하고 있다. 릭사꾼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천천히 운전하고 있어 충분히 즐기며 내려간다.

문순팰리스에서 나와 라자스탄 민속무용 공연을 하는 바고르키하멜리(Bagore-Ki-Haveli)로 이동한다. 공연장 입구에서 나래와 집사람은 nail painting을 한다. 손톱에 코끼리와 공작새들을 세필로 그려 넣는데 인도사람들은 손재주들이 많은지 곳곳에 성업을 하고 있다.

집사람에게 나래랑 시스터냐고 물어보아 엽서 한 장을 샀다고 한다. 인도인도 상술이 뛰어나다고 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7시에 본격적인 민속무용 관람이 시작됐다. 명석을 깔고 앉아 관람하는데 같은 호텔에 묵고 있는 관광객들도 보인다.

이 곳 바고르키하멜리(Bagore-Ki-Haveli)는 18세기에 수상을 역임했던 바고르가 머물렀던 저택인데 총138개의 방과 안마당까지 갖춘 거대한 규모로 지금은 민속공연을 전담하는 문화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공연은 불향아리를 머리 위에 놓은 여인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고 다음 2명의 무희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공작새털을 들고 춤을 춘다. 또 여러 명의 무희들이 베일처럼 사리를 뒤집



시티팰리스(City Palace) 전경

어쓰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다. 인형극도 보여준다. 피날레 공연은 향아리를 하나둘씩 머리위에 점차 올려가며 9개까지 올리고 모기하트 춤을 보여주는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미있게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니 군 장성인 듯 보이는 사람도 같이 나왔는데 몇 명에서 호위를 한다. 인도의 장성들도 대접을 잘 받는 모양이다.

1월 17일

7시 기상하여 8시 30분 아침을 먹고 릭사를 대절하여 인도 민속촌인 실프그램(Shilpgram)으로 향한다. 시골 길같은 도로를 달려 11시에 도착하였는데. 한적하다. 외국인 관광객 몇 팀이 있을 뿐이다. 입구 점포에서 짜이를 한 잔 시켜먹고 일단 주변을 감상한다.



실프그램(Shilpgram)에서의 민속공연

서서히 걷는 기분도 좋다. 건

물들은 우리의 초가집 같은 분위기가 많이 풍긴다. 그네도 타본다. 중년 남성이 능숙한 솜씨로 도자기 굽는 모습들도 보이고 길거리 액세서리 좌판 매점도 구경한다. 손님을 유치하기위해 작은 악기로 연주를 하기도 한다.

어떤 가게에서 인형을 파는데 5명의 가족이 나와 있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 딸아이를 보니 얼굴에 검은 칠을 했다. 이유를 물으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밍게 하고 있어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나래가 말한다. 일종의 민간신앙이다. 그래도 어쩐지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출구 쪽으로 걸어나오는데 때마침 전통 민속공연을 하고 있어 재미있게 봤다. 릭사를 타고 돌아오는데 양떼들이 유유히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다. 공원에서 할아버지가 손주 셋을 등에 태우고 같이 놀고 있다. 평화로운 정경에 이끌려 릭사에서 내려 잠시 휴식을 취한다.

다시 Dream Heaven Roof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다가 터미널로 간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텔리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던 은희 씨를 10일 여만에 다시 만났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놀랍다. 그녀들은 둘다 베네통 가디건까지 입고 있었다. 헤어질 때 한 말이 실제 현실이 된 것이다. 둘이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담소를 나누다가 서로 여행지가 달라 또 다시 헤어진다. 버스에 오르니 자이살메르에서 낙타사파리를 같이 갔던 한국 청년들이 인사를 한다. 오늘은 두 번씩이나 반가운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다. 행운이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석양을 보며 몸바이로 떠난다. ㉔